

파주 별판에 신기한 곳 생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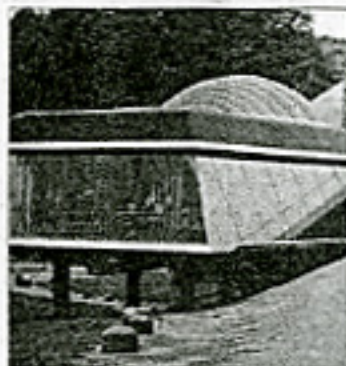
조선일보 91년 6월 6일(수) 2면

'문화마을' 헤이리에 (썸지 건물 2곳
나선형계단·경사로... 창고같은 미술관

우아한 걸러리와 작가 스튜디오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는 파주 헤이리에 지난 12일 개관한 건물은 한아디로 파격이다. 뒤는 쪽에서는 들쭉거리라면 서러워 할 썸지가 선 보이는 '썸지미술창고'와 '땀기가 좋아'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야심차게 문화예술을 지원하며 미술과 대중음악, 패션에서 '썸지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썸지의 최신작이다.

특히 복합문화플렉스라는 '땀기가 좋아'는 보통 기업처럼 점잖게 '메세나'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 '땀기'를 110% 선전하는 공간이다. 건축가 최문규, 조민석, 제임스 슬레이드씨가 공동 설계한 연면적 600평 규모의 건물에서 전형적인 것은 없다. 복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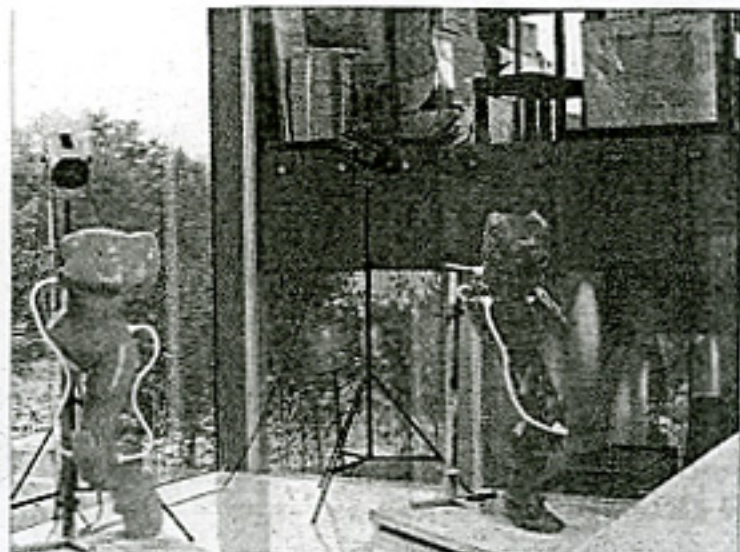
곳곳에서 곡선으로 휘어지며 새로운 공간을 만나고 경사로와 나선형 계단이 전시관으로 이어진다. 외부에서 바로 경사면을 타고 풀이 깔린 3층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사우나실처럼 꾸민 휴식 공간, 종선점처럼 달콤한 색깔로 칠한 벽, 만화 이미지로 도배한 복도. 다양한 전시장까지 곳곳을 누비고 싶은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이 공간에서 '땀기' 제품은 더욱 돋보인다. 공간과 제품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인지 12일 개관행사 중 계산대 앞에는 '땀기'를 한아름씩 안은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섰다. 개관 행사로 잠은 '블라이스' 인형·사진 전시 역시 '예술+비즈니스+대니아'라는 썸지 분위기를 드러낸다. '땀기가 좋아'는 다분히 상



파주에 들어선 썸지의 '땀기가 좋아'.

업적인 공간이면서 건축계에서 갈채를 받는 작품이다. 얼마 전 미국의 건축상 'P/A 어워드'에서 입선했고 올가을 비즈니스 건축 비엔날레에도 초청받았다.

반면 역시 최문규씨 팀이 설계한 '썸지미술창고'는 그저 좁고 길다란 박스형이다. 썸지 컬렉션은 보관·전시하는 공간인 이 미술관은 대형마트 창고를 연상시킨다. '창고 분위기'는 오히려 전락이다. 이불 고낙범 함경아 김홍석 박한경



'썸지미술창고' 내부. 작품은 이불의 '사이보그 코드 & 플루' (1997-98).

정영래 김승영 오인환 노상근씨 등 썸지가 그동안 적극 지원했고 이제는 미술계에서 두각을 보이는 작가들의 작품을, 포장을 반쯤만 벗겨 놓기도 했고 아예 포장도 뜯지 않고 걸걸이 포개 놓기도 했다.

함판을 막 던낸 듯한 미술관을 돌아다니다가 구석에 놓인 평상에 걸터앉은 관객은 그 역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 일어 서기도 한다. 이불의 '사이보그' 등 작품마다 작품제목·로그·상대

·담당자·반쯤반입 상황 등을 마치 윗층 창고에 재고 정리하듯 기계적으로 적어 붙여 놓았다. 창고 사이를 돌아다니는 관객들은 '층치보는 재미에 빠질 수 있다'고 미술관 측은 설명한다. 썸지가 만들어내는 문화공간의 결정판은 연말쯤 모습을 드러낸 인사동 공예골목이다. 썸지의 전략이 상업적 공간 창출로 끝날지 건강한 문화적 충격을 이끌어낼지 문화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재연기자